

엉터리 기상데이터에 날씨 오보 '악순환'

'기상청 관측자료 품질등급제' 분석해보니

전국 공공기관 수집 기상자료 30%가 '무용지물'

전남 90% '불량'…산림청은 자료 제공 고작 1건

국내서 관측 안된 '최고 기온 70도' 보고 되기도

전국 공공기관에서 수집하고 있는 기상 정보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이 기상 관측의 정확성을 높여 '날씨 오보'(誤報)로 인한 국민 불신을 없애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지만 기상 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

는 '불량' 자료가 적지 않아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홍영표 민주당 국회의원이 기상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2013년 관측자료 품질등급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국 4만1580곳 관

측 지점에서 수집된 기상 자료는 절반 수준인 2만2734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수집한 자료의 30% 가량인 6914건은 아예 기상 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불량 자료'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 관측될 수 없는 '최고 기온 70도',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강수량 100mm' 등으로 정상 자료율이 80% 미만인 경우가 많아 기상청이 '자료'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의 경우 상황이 훨씬 심각했다. 전남지역에서 수집된 기상 자료

445건 중 404건(90.8%)이 '불량' 자료였다. 광주도 120건 중 절반이 넘는 74건(61.6%)에 대한 자료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기상청은 파악했다.

산림청의 경우 지난해 단 1건의 기상 정보 제공에 그쳤고 이미지도 자료로 사용할 수 없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경우 634건 중 634건(100%), 경환경부는 368건 중 326건(88.6%)의 기상 정보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보의 정확·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작했지만 예보에 활용할 수조차 없었다는 얘기다.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관측자료 품질

등급제'를 추진한 결과라는 비판도 나온다.

재정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관측 장비 설치 및 보수 비용을 부담하면서 빚어진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도 많다.

기상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면적에 맞춰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는데 전남의 경우 광주에 비해 기상 관측 장비 설치 지점이 30배 이상 많아 오류도 많이 발생했다"면서 "자료 수집 시스템을 재정비하면서 기상 자료 수집률도 낮았다"고 해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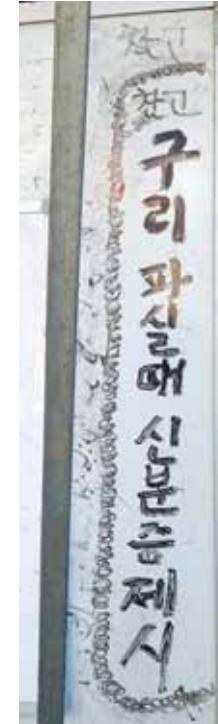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전남대병원 '사랑나눔 도서바자회'

18일 전남대병원이 저소득층 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마련한 '사랑 나눔 도서바자회'가 열리고 있는 병원 로비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책을 고르고 있다. 도서바자회는 오는 28일까지 이어진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불황 속 '구리의 위상'

고물상서 사고 팔때 신분증 제시해야

절도 행위 잇따라…취급업체 도난 비상

18일 광주시 동구 학동 S고물상. 업주 최모(74)씨는 산더미처럼 쌓인 고물을 중에서 구리만 따로 골라냈다. 분리한 구리는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사무실 금고에 따라 보관했다. 사무실 입구에는 '구리 파실 때 신분증 제시(사진)'라는 문구가 크게 붙어있었다.

경기 침체를 틀타 구리가 상종이다. 절도 범들에게 견적으로 떠올랐고 취급업체들 입장에서는 도난을 막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일반 고철의 경우 1kg당 300원 안팎을 쳐 준다. 반면, 구리는 1kg당 6500원으로 20배

가량 높다. 중국 수출이 활발한 2008년 1kg당 1만원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한 달 고철 수출량(10t) 중 구리는 200kg가량으로 2%에 불과하다. 구리 판매·구입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게 최씨 설명이다.

구리 절도 행위가 끊이질 않는 것도 이 때문이었다.

광주남부경찰은 18일 최근 배달하던 구리 동판을 빼돌려 판매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주모(47)씨를 구속했다. 주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10시께 부산시 강서구 성북동 여모(53)씨의 물류창고에서 구리 동판 27.3

t을 빼돌려 광산구 소촌동 고물상에 1억 70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경찰도 지난달 28일 오후 나주시 노안면 김모(46)씨 고물상에 침입, 보관된 구리 3t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최모(55)씨와 맴도(50)씨를 구속했다.

고물상 업계도 구리 구매에 앞서 판매자 신분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있다.

올해 국세청이 '구리계좌'를 만들어 구리를 매입·매출할 때는 반드시 지정 은행을 통하도록 강화한 것도 한몫을 했다.

괜한 장물을 샀다가 범죄에 연루될 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이다. 신분증 제시는 기본에 구리를 살 때 인적사항을 따로 기록해 두는가 하면, 첨단 경비장치가 설치된 '구리 전용 보관 창고'를 만들어놓은 고물상도 생겨나고 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10원입니다'

광주고물상협 '벼룩시장'

5월 중 쌍암공원서 열어

'10원 벼룩시장'이 열린다.

광주시 고물상협회가 5월중에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쌍암공원에서 '10원짜리 벼룩시장'을 연다. 광주 300여곳 고물상에서 쓸만한 물건들을 골라 내놓는 장터로, 밭풀을 팔면 저렴한 가격에 '황재'를 할 수 있다.

협회는 버려진 물건에 대한 가치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행사인 만큼 수익금을 전액 불우이웃을 돋는다. 벼룩시장은 18일 밝혔다. 2011년 초부터 사귄 두 사람은 학교에 알려진 커플이었다. B씨는 아파트를 사들였면서 A씨에게 조언을 구하고 동·호수를 알려

활동이 요구되는 '매우 나쁨' 수준을 나타내기도 했다.

전남지역도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78㎍/㎥을 기록해 지난 일주일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난 13일 미세먼지 평균 농도(17㎍/㎥)에 비해 무려 5배나 높은 것이다.

19일 아침에도 광주·전남지역 곳곳에 옥은 황사가 나타나겠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광주·전남 첫 황사…미세먼지 농도 증가

광주·전남지역에 올 들어 첫 번째 황사가 나타나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크게 증가했다.

18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이 날 오후 6시까지 광주지역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71㎍/㎥로 전날(44㎍/㎥)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날 광주지역은 한 때 미세먼지 농도가 311㎍/㎥를 기록하면서 실내

주는 등 구체적 내용을 상의했다. 그러나 B씨는 A씨뿐 아니라 같은 학교 여교사 C씨와 '양다리'를 걸친 상태였다. B씨와 피임 없이 성관계를 한 두 여성은 2012년 3월께 동시에 임신을 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 판사는 "B씨가 A씨에게 장차 신혼집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의 구입을 상세히 알려주며 상의했고 그 직후 성관계를 가진 점을 종합해보면, 두 사람 사이에 둑시적으로 약혼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법원 "신혼집까지 상의후 성관계는 약혼 합의한 것"

아파트 구입을 상의한 데다 서로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까지 한 남녀는 목사적으로 약혼에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가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최정인 판사는 여교사 A씨와 부모가 동료 교사 B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총 2500만원을 지급 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11년 초부터 사귄 두 사람은 학교에 알려진 커플이었다. B씨는 아파트를 사들였면서 A씨에게 조언을 구하고 동·호수를 알려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등

전통한복 맞춤대여

정성 가득한 마음과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으로
전통과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Izuri 예우리 옷 맞춤대여전문점

T. 062-228-6330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졸업, 전주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초 혼

추천 회원

재 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회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오클스트리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28~47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9~49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7~48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29~39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4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39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국영기업 직원 28~4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임페리얼 퀸